

# 목판문화재를 가해하는 바구미 해충

이양수<sup>1</sup>, 홍기정<sup>2</sup>, 홍성덕<sup>3</sup>, 김근영<sup>1</sup>

<sup>1</sup>전북대학교 산림과학부, <sup>2</sup>국립식물검역소 중부격리재배관리소, <sup>3</sup>전북대학교 박물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26-3번지에 소재한 사적 제379호인 전주향교에 소장된 완영책판에 대한 정리사업을 수행하였다.

전주향교의 장판각에 소장된 책판 수는 차치통감망목(1,775), 주자대전(1,471), 동의보감(151), 율곡전서(491), 성리대전(576) 등 10종 5,059판이었고, 이 책판의 재질은 자작나무과의 자작나무속(*Betula* sp.)에 속하는 목재로 식별되었으며, 전라도 지방에 자생하는 거제수나무, 사스레나무 혹은 박달나무 종류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987년 장판각 건립 이후 완영책판이 이곳에 모여져 보관해 왔으나, 이 장판각의 위치가 부근에 조그마한 연못 등 능선이 아닌 계곡라인에 위치해 있어 습지환경을 이루고 있고,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며, 건물의 벽면 하단에 통풍을 위한 통로로 간격이 큰 철망으로 열기설기 묶어놓아 곤충이나 쥐 같은 유해동물의 출입이 용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완영책판 보존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존된 완영책판은 상당히 많은 목판들이 해충에 의해 피해를 받아 심한 경우 조각된 활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었다. 이들 목판을 가해하는 주요 해충으로 딱정벌레목 바구미과(Curculionidae)의 막대바구미아과(Cossoninae)에 속하는 한 종이 채집되어 동정한 결과, 국내에서는 처음 알려지는 *Hexarthrum brevicorne* Wollaston란 종으로 밝혀졌다. 이 종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가옥 내 건재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막대바구미는 나무좀과 같이 목판의 열화피해를 일으키는 종으로 열화된 목판의 갱도입구에서 수십 마리의 성충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조선시대에 수많은 책들을 발행할 때 사용하였던 책판들 중 그 구체적인 출처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만 8천여 점의 책판과 전라감영에서 사용하였던 5천여 점의 책판이 전부이다. 규장각 소장 책판의 경우 왕실이나 중앙정부에서 사용한 것이었던데 비해 전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완영책판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의 명령이나 또는 자체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제작된 유일한 책판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인 목재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목재를 열화시키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인자들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판의 보존과학적인 조사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란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